

## 지원사업 임팩트 연구

# 자립준비청년 민간 지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조소연 |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김수영 |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  
손선옥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민간과 공공 서비스의 현황과 역동을 분석하여 양자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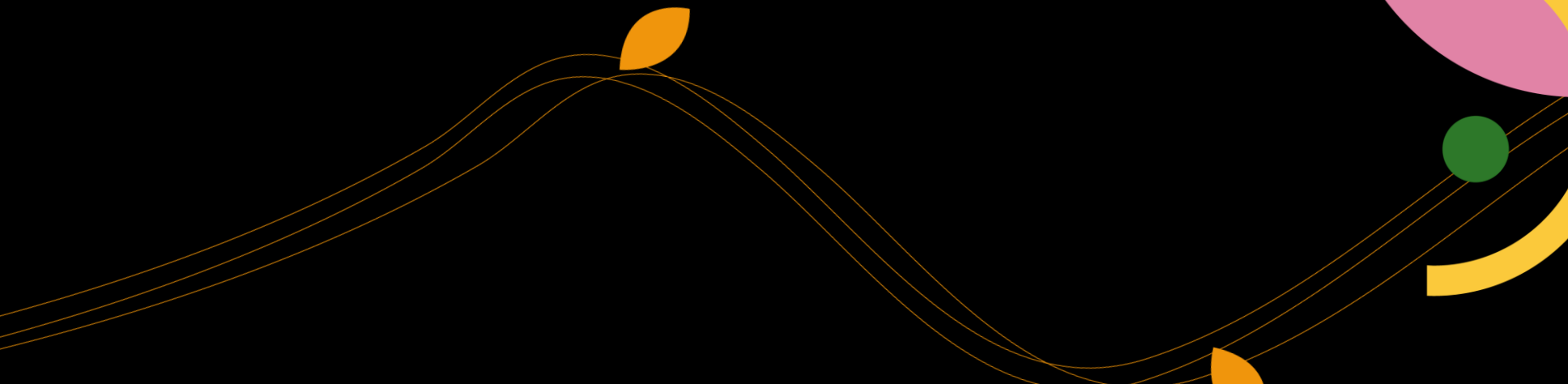
1. 국내 사업의 현황과 쟁점
2.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성과 분석
3. 사업 방향 제안

#### 사회복지연구소 마:실은

'마음을 나누는 실천'의 약자이며,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는 우리말 방언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협력하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복지 실천 공동체 지향하는 연구소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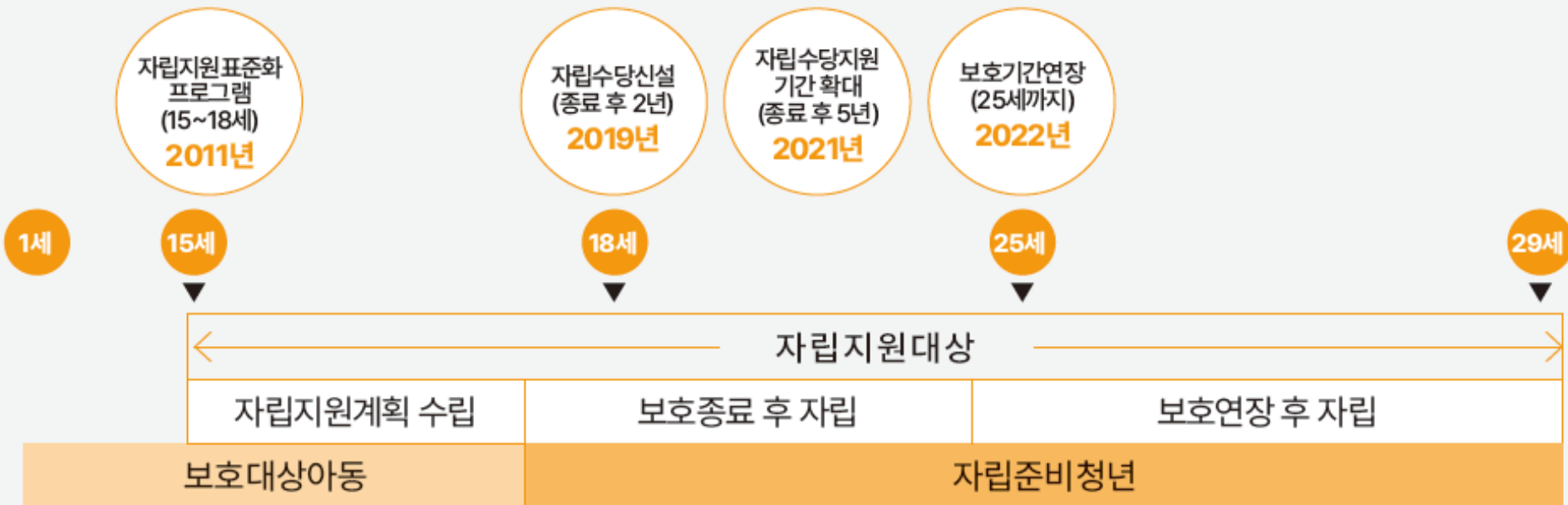
열어달려  
공명하다,

# 1. 국내 사업의 현황과 쟁점



## Issue1. 자립지원 범위 확대 but 수의 감소

-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범위는 아동보호체계로 진입한 시기부터 최대 29세까지로 점차 확대되었음.



## Issue1. 자립지원 범위 확대 but 수의 감소

- 그러나 지난 5년간 아동수 감소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감소.  
원가정 복귀를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이제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는 양적 확대보다 '질'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자립준비청년의 수(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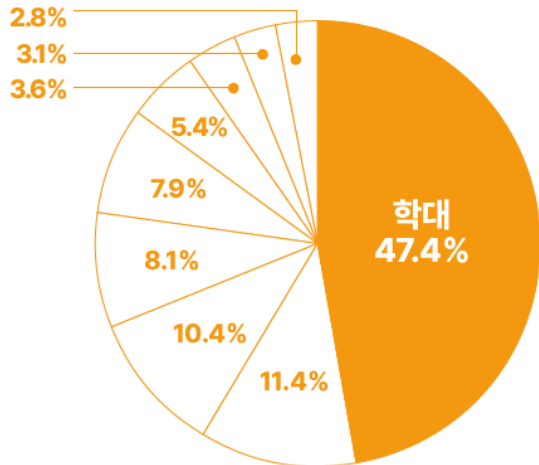
연도	합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단위: 명)
				가정위탁
2018	2,606	1,065	192	1,349
2019	2,587	992	172	1,423
2020	2,368	827	168	1,373
2021	2,102	726	157	1,219
2022	1,740	717	124	899
<b>보호종료 5년 이내</b>	<b>11,403</b>	<b>4,327</b>	<b>813</b>	<b>6,263</b>

출처: 국회입법처, 2023.2)

## Issue2. 가족이 있지만 없는 자립준비청년

- 부모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립준비청년의 대부분은 원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립준비청년 중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자립 양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자립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1년 보호조치아동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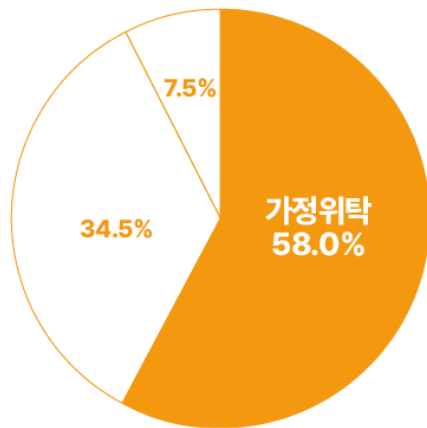
구분	수(명)	비율(%)
학대	1,733	47.4
부모 이혼 등	417	11.4
미혼부모 및 혼외자	379	10.4
부모 사망	297	8.1
비행 가출 부랑	289	7.9
부모 빈곤 및 실직	198	5.4
유기	130	3.6
부모 질병	113	3.1
부모 교정시설 입소	101	2.8
전체	3,657	100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sup>3)</sup>

## Issue2. 가족이 있지만 없는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대리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이 대부분을 차지함.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홀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한 원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원가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2021년 보호유형별 자립준비청년 수



구분	수(명)	비율(%)
가정위탁	1,219	58.0
아동양육시설	726	34.5
그룹홈	157	7.5
전체	2,102	100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 Issue3. 물질적 지원에 집중

자립준비청년 최대 수령 가능 금액<sup>6)</sup>



- 1천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최대 1,000~2,500만 원)
- 보호기간 중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립한 금액 (1:2 정부 매칭, 최대 10만원)
-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매월 40만원(2024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 민간지원 : 긴급생계비와 장학금지원 등 현금지원 중심. 중복지원 가능.
- '자립정보ON' : 생활비, 장학금, 저축 매칭 지원 등의 현금 직접 지원, 청년의 관심 가장 많았음.
- 물질적 지원이 확대된 것의 부작용 우려. 수급권과 다양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 청년, 무기력한 청년 문제가 대두하기도 함.



## Issue4. 정보 격차의 문제

“아이들 중에 몇 년 동안 1억 원을 지원 받는 경우까지도 봤어요. 근데 반면 어떤 아이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중략)...아무런 의욕 없이 그냥 수당으로만 버티는 이런 상황들도 봤고 노숙까지 가는 경우도 나와서(현장 전문가C).”

- 최근 공공과 민간의 자립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이용 정도에는 차이가 큼. 자립준비청년의 정보격차 문제와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2023년 자립정보를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ON'을 개설하였지만, 지자체와 민간의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음. 자립정보 문의 등 도움 필요 시 연락 가능한 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 및 전문상담사 배치 필요

## Issue5. 보호체계별, 서비스 유형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너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어? 너는 어디 있다가 왔어? 너무 부럽다. 나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그때 그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주지 않았을까?(현장전문가B)”

-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등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상당수임. 이들은 가정 밖에서 보호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18.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 28.2%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음(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 Issue5. 보호체계별, 서비스 유형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 그러나 체계별 자립지원 수준은 매우 격차가 큰 상황임.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이 나머지 두 체계 청년에게는 지원되지 않으며,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2024년부터 지급 예정)이 지원되지만, 2년간 쉼터에 거주하고, 마지막 6개월은 한 시설에서 생활해야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도 짧음. 소년원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음.
-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서비스 유형에 따른 편차가 존재함.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만 배치되어 있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도의 모든 위탁가정을 담당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 Issue5. 보호체계별, 서비스 유형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 모든 아동은 서비스를 차이 없이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21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발의된 바 있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Issue6. 보호종료 후 단기간만 집중된 Second Chance가 없는 지원

“자립이라는 것이 어느 날 똑딱. 절대로 자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호 종료 때 제대로 준비하고 내 손에 있을 때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현장 전문가C).”

“자립을 돕는다 그러니까 한 청소년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생각이 들어요(현장 전문가D).”

- 자립지원의 내용은 대부분 보호종료 후에 이루어지고, 보호기간 중 지원하는 내용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에 따른 자립계획 수립과 생활, 진로 교육이 유일함.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기간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특수욕구가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 Issue6. 보호종료 후 단기간만 집중된 Second Chance가 없는 지원

“발달장애, 지적장애, 경계성지적기능장애 등은 시설에서 적절히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현장전문가A).”

“쉽게 성매매에서 돈 벌고 그래서, 자립을 돕고 어떤 것들을 해준다 해도 거기에 또 금방 빠지고 거의 유혹에 넘어가고(현장전문가D).”

-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생활, 자금관리, 범죄노출 등의 문제가 증가하지만 이에 맞춘 상담이나 컨설팅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보호기간부터 개입이 시작되어 보호종료 후까지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Issue7. 어려움을 드러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 이들이 살아온 기간 동안 계속해 온 일이거든요(현장전문가B).”

- **청년의 과거보다는 미래와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민간의 지원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할 뿐 아니라, 신청 과정에서도 자기 어려움을 더 드러낼수록 지원받기 쉬우며, 공공의 서비스조차 자신이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연결되는 서비스가 많음.

## Issue7. 어려움을 드러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성인으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보장하는 차원의 '청년 친화적' 접근책을 마련해야 함. 보호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논의와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보호의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는 성년이 되어 시설을 벗어나 독립된 공간에서 살기 원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2021년 자립준비청년 연장종료 현황 (단위:명,%)

종료사유	전체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만기퇴소	863(41.1)	271(22.2)	480(66.1)	112(71.3)
연장종료	1,239(58.9)	948(77.8)	246(33.9)	45(28.7)
전체	2,102(100)	1,219(100)	726(100)	157(100)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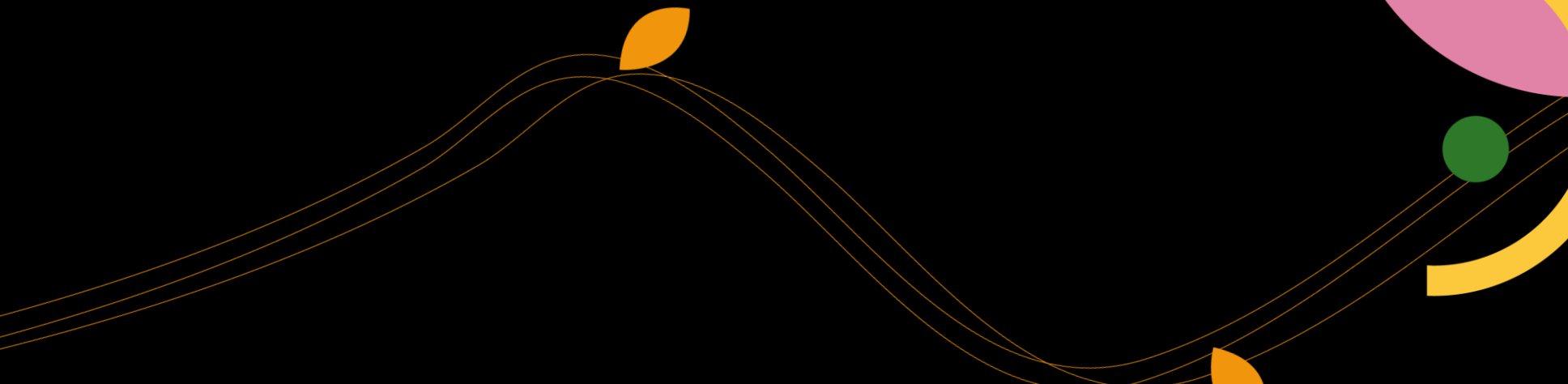
## Issue8. 사회적 관계의 부재와 단절

“퇴소한 다음에 아이가 관리 안돼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물론 아동수당 주고 자립정착금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아동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거를 누군가가 조금 체크하는(현장 전문가A).”

“아이들은 끊임없이 관계가 잘되지 않으면 자립할 때 다 무너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 아이들이 삶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를 잘 가르쳐야 되고 그것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줘야(현장 전문가D).”

-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자립 후 지속해서 연락하며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임. 이미 사회적 자원과 관계망이 부족한 경우, 자립 후 최소한의 관계마저 단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촘촘한 관계망의 구축과 유지가 필요함.

## 2.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성과 분석



# Impact1. 선도적 자립지원 모델의 견인

<b>민간</b>	<b>아름다운 재단</b>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b>교보교육재단</b> 희망다솜사업	<b>현대차 정몽구재단</b> 온드림 사업	<b>삼성전자</b> 삼성희망 디딤돌 사업	<b>아름다운재단</b> 주거안정 지원사업	<b>포스코1% 나눔재단</b> 두드림 ACT	<b>아름다운가게</b> 청년비전 프로젝트 플랜V	<b>두나무</b> NEXT JOB		
	<b>1993</b> 자립지원 센터 운영	<b>2001</b>	<b>2004</b>	<b>2007</b> 디딤씨앗, 자립전담 요원배치	<b>2011</b>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b>2012</b> 자립지원 법적 근거	<b>2014</b>	<b>2016</b>	<b>2019</b>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b>2021</b>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방안
<b>공공</b>										

- 아름다운재단은 자립 지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200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지원 시작.
- 당시 가정외보호아동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로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도전이었으며, 다른 민간기관과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견인하는 역할.
- 교육비지원사업은 대학생의 학업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음.

## Impact2. 지원 연령의 확대와 선정 기준의 융통성

-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초창기부터 보호종료 후 자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법제도가 개선되기 전부터 청년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하였음.
- 장학생지원사업의 대상을 선발할 때도 현재의 성적보다는 사람(가능성)을 보는 선발제도를 도입하고, 고통을 드러내기보다 희망을 발굴하려는 관점과 태도로 접근하였음. 서류심사와 면접 등 선발 과정에서도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철학이 드러났으며, 이는 타 지원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음.

## Impact3. 문턱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함

- 아름다운재단은 초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던 장학금과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비진학 및 취업준비 청년으로 확대하였음. 이는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퇴소 후 생계를 위해 진학보다는 취업을 준비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보호기간 중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로선택의 폭을 확장 시켜주고자 하였음
- 법적으로 규정된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당시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시설 중도 퇴소자'와 '청소년복지시설(쉼터) 퇴소자'도 포함하여 사각지대 청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음.

## Impact4.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지원

- 사회적 자본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모색 : 재단 사업이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 이에 따라 대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참여자 팀별 모임, 네트워크 프로그램, 1:1 모니터링 등 참여 청년 간 소통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해왔음.
- 이는 서로를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창구로도 활용되었음.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던 것. 제 주변에는 자립에 실패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 Impact5. 자립 역량의 강화

- '작은변화 프로젝트' : 자립청년 선후배가 만나 모임과 활동을 함께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음. 구체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사업,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학비, 생활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의 사소한 지침과 팁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였음.
- 이 프로젝트는 각 팀별로 스스로 선정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이 과정 자체가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음. 활동의 결과가 지식과 기술 습득이나 취업으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활동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음.
- 또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계획과 결과보고를 하게 하였는데, 청년들은 운용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었음.

## Impact6.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자립 보장

-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유지를 돕는 생활 보조를 위한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였음. 또한, 교통비와 독서실비 등 학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 생활 및 학업 수행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 Impact7. 청년 권리의 확장으로 관점 전환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 활동, 취미 및 문화 활동도 지원.
- 모든 과정은 청년의 관심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며 이루어짐.
- 이는 생존권과 보호권 중심의 지원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으로 청년의 권리를 확장하여 접근한 것이었으며, 기본적 생계유지만을 강조하던 기존 사회서비스의 시각을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으로 전환한 시도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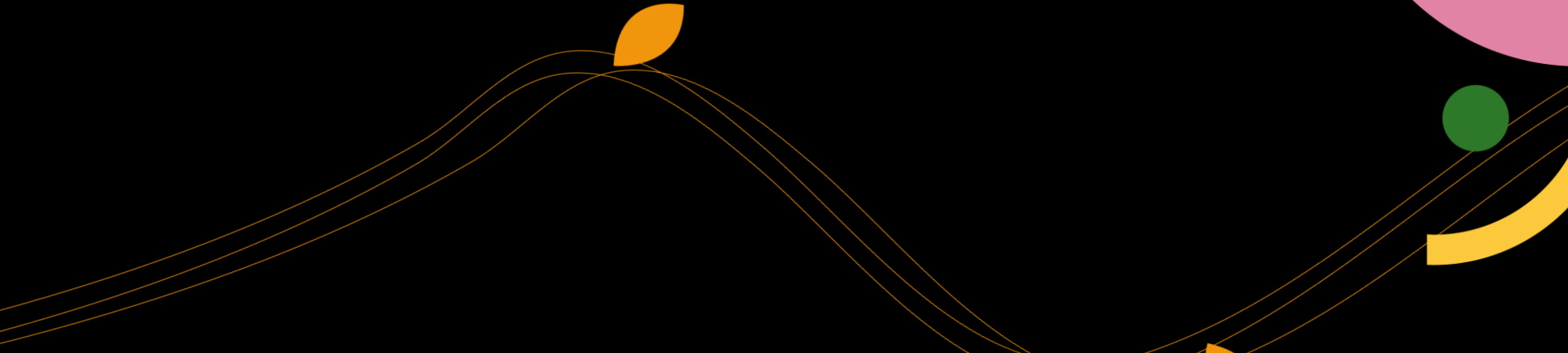
## Impact8.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는 이용자 중심 실천

-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지원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중요시하면서 청년이 자발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해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도 청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지지하였음.
- 대상의 선정과정에서도 성적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듯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였음.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지지하고 응원함.

## Impact9. 나눔의 선순환

-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움주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경험함.
- 이들은 지원이 끝난 후에도 금전적인 기부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신의 자립 노하우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

# 3. 사업 방향 제안



## Restart1.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가지 않은 길

“판을 깨는 그런 작업들을 좀 아름다운재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현장 전문가B).”

- 보호체계별로, 보호유형별로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 장애인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하는 일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꾸는 역할임.
- 민간의 역할은 어찌면 '계속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가장 빠르게 개입하는 것, 그리고 문제 제기를 통해 공론화하는 일**은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임.

## Restart2. 가족, 타인과 함께하는 자립

-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보다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함. 그리고 이러한 배움은 보호기간 중에,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특히, 연결되고 유지되어야 할 사람은 가족부터 시작하여 친구, 동료, 이웃, 전문가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임. 관계를 끊어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고립'이 아니라, 의논할 어른, 공감할 친구, 활동할 동료와 '함께하는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고안이 필요함.
- **Family Conference와 Epic Ohana의 Youth Circle 프로그램의 강점을 활용한 시범사업:** 원가정을 포함한 서비스제공자 등의 지지체계가 모여 아동의 보호와 가족관계의 유지와 복귀 등을 논의, 청소년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장하고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둬.
- 보호체계별로, 보호유형별로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 장애인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하는 일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꾸는 역할임.

## Restart3. 경계를 넘나들기

- 현금, 현물, 서비스의 혼용, 시간과 공간의 넘나들 뿐 아니라, 지원 주체의 경계를 깨는 작업이 필요함. 공공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시도하는 차원, 혹은 역할 나누기를 넘어서서 공공의 정보력과 권한, 민간의 자원과 융통성을 모두 활용하는 '완전한 파트너십'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논의하는 공공과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이러한 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함.** 이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중복되고 누락된 영역의 확인과 개선, 역할 분담, 현안에 대한 공동 이슈 파이팅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임.

열어놓은 어른,  
공명하다,

